

# 朝鮮後期에 제작된 『宣祖大王實記』

장동익\*

## 차례

1. 자료의 소개
2. 자료의 전문
3. 자료에 대한 소견

## 1. 자료의 소개

필자는 최근 화려한 꽃무늬의 비단으로 꾸며진 조선시대의 典籍이 아무런 관심을 끌지 못한 채 허무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 자료는 庚子年 8月 15日(望日) 李山海가 왕명을 받아 편찬한 것으로 추측되는 『宣祖大王實記』 1冊(標題는 宣祖實記)이지만, 실제의 내용은 冊名에 부합되지는 않는다. 1) 이의 크기는 가로 35.5cm, 세로 40.5cm이며, 紙質은 잘 손질된 壯紙, 表紙의 장정은 옅은 남색의 화려한 꽃무늬의 비단에 종이를 배접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본문은 紅色의 테두리를 목판으로 인쇄한 종이에 銀을 얇게 가미한 붉은 빛의 안료[朱色銀泥]로 2) 유려하게 쓰인 예서체로 되어 있지만, 현재의 상태

\*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歷史科 教授, 研究分野: 韓國中世史, 著書: 『高麗後期外交史研究』, 『元代麗史資料集錄』, 『宋代麗史資料集錄』, 『日本古中世高麗資料研究』等.

1) 이 자료는 京都大學 附屬圖書館에 소장되어 있고, 청구번호는 附圖 B2 5-46 せ2 大別이다.

2) 현재 색깔이 많이 바래져서 일부는 연두색으로 변하기도 하였다.

는 색깔이 바래져서 판독이 어려운 글자도 있다. 테두리의 크기는 가로 30.5cm, 세로 30.5cm, 줄의 간격은 4.3cm 정도이며, 판심은 상단에 꽃잎 파리가 2개이고 판심제는 없다. 책의 전체가 36쪽으로 34쪽에 걸쳐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2쪽은 白紙로 되어 있으며, 하나의 쪽은 일곱 줄로 되어 있다. 그 중 1쪽에서 12쪽까지는 가로로 선을 그어 단은 만들지 않았으나, 13쪽 이하는 글자의 위치를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 두 개의 선을 인쇄하였는데, 위의 것은 두 줄, 아래의 것은 한 줄로 되어 있다. 하나의 줄은 대략 21~24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책의 끝 부분인 34쪽의 6~7행에 크기 7.5cm×7.5cm의 朱色 印章이 찍혀 있는 글자는 상하로 세자씩 여섯 자이지만, 판독이 불가능하였다. 또 그 아래 부분에는 필사자인 李山海의 것으로 추측되는 手決이 써져 있다.

이 자료의 내용은 臣僚들의 대립과 분열을 적절히 이용하여 왕권을 유지하면서 현실을 즐기고 있었던 宣祖에게 倭敵의 침입을 전한 關羽의 現夢, 왜적의 침입과 경상도 지역에서의 전투상황, 晉州城에서의 三壯士의 활약 및 論介의 忠節, 국가 파탄의 위기를 구하고자 노력한 李恒福 및 金誠一의 明에 대한 군대의 요청 과정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평양성을 수복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이루어졌던 金德令의 敵將 鳥西飛의 제거 및 온몸을 바쳐 그를 도왔던 軍官들의 守廳妓生<sup>3)</sup> 花月の 고귀한 희생<sup>4)</sup>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내용은 여타의 자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내용적으로 특별히 주목되는 바는 없고, 사건의 전개에 따른 시간관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지 못한 점에서 자

3) 赴防軍官들의 生活 및 守廳妓生에 관한 연구로는 禹仁秀, 「赴北日記를 통해 본 17세기 出身軍官의 赴防生活」, 『한국사연구』 96, 1997 : 「조선후기 北邊地域 妓生의 생활양태」, 『역사와 경계』 48, 2003이 있다.

4) 이는 평양성 전투에서 적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던 金應瑞의 敵將 除去, 이를 도왔던 桂月香의 아름다운 사랑 및 國家에 대한 獻身을 묘사한 것이다.

료적인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단지 이 자료가 왕명을 받들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筆寫者가 宣祖代(1567-1608)에 名筆로 이름이 높았던 李山海(1538-1609)와 같은 이름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그렇지만 서술된 문장이 그리 유려하지 않고 약간 치졸한 면도 없지 않으며, 誤字·衍字도 가끔 보인다.<sup>5)</sup> 또 문장의 연결 부분에 지나치게 ‘遂’字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또 침략군의 지휘관인 倭將[倭酋]들의 서술에서 평양에 주둔한 鳥西飛, 鳥嶺을 격파한 平秀吉, 漢江을 渡河한 賀羅北, 火旺山城을 공격한 北地, 晉州城을 공격한 昔種奴 등이 보이는데, 이들의 人名表記는 다른 자료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행적으로 보아 平秀吉은 小西行長으로, 鳥西飛는 姓名未詳의 小西行長의 부하로, 賀羅北은 加藤清正으로, 北地는 羽柴秀勝으로, 昔種奴는 島津義弘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서술된 내용도 關羽를 신앙의 대상으로 한 關王崇拜와 관련하여 道敎的인 색채를 풍기는 신비적인 설화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왜란의 극복과정에서 명나라 군인들에 의해 존숭되었던 關王에 대한 숭배가 조선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아울러 이의 내용은 두 차례에 걸친 이민족으로 부터 당한 처절한 패배의 끝에 배태되고 유행했던 軍談小說과 유사한 면이 없지 않다.<sup>6)</sup>

5) 그 한 예로 誤字는 4쪽 6행에서 火旺山을 夏旺山으로, 28쪽 1행에서 刺를 刺로 표기한 것을 들 수 있고, 衍字는 31쪽 7행의 끝 글자와 32쪽 1행의 첫 자인 於를 들 수 있다.

6) 그러한 결과인지는 몰라도 필자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조오백년』과 같은 책의 일부가 아닌가하는 정도의 허구적인 내용이 많다. 또 이의 내용 중 일부는 허망한 신분의 굴레에 매여 있었으면서도 국가적인 위기를 당해 돌보이는 죽음을 택했던 여인의 애달픈 모습을 그린 것이다.



## 2. 자료의 전문

이 자료의 전문은 원래 세로쓰기로 되어 있는데, 이를 가로쓰기로 전환하여 轉載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밑줄 친 글자는 右上段에 追加한 添字로 校訂해야 옳을 것 같은 글자이다.<sup>7)</sup>

### [제1쪽]

- 1행 宣祖大王寶記壬辰年別秘宮中奉錄
- 2행 萬曆壬辰秋七月十五日夜,王夢中有一將軍,杖劔被
- 3행 甲,自東方來,叩門大呼曰,王宿也<sup>耶</sup>,不宿也<sup>耶</sup>,王曰,誰也<sup>耶</sup>,對曰,
- 4행 我古漢壽亭侯關雲長也,明日即王之國內,必有大變,風
- 5행 雨,到於先陵,自漢江以東人,火絕也,何其偃蹇鼻睡也,王推枕
- 6행 驚起,四顧無人,但有火城煌煌而已,毛髮盡悚縮,而就枕矣,
- 7행 良久,又呼曰,王不信吾言,國內擾亂,可立而待也,王再拜曰,何爲其

### [제2쪽]

- 1행 然耶,無乃臣子,作孽而然耶,曰否也,即今倭僧申叔舟,刻木
- 2행 爲萬古名將,藏于籠中,明日午後,自南門外,載籠而來,王伏
- 3행 兵其處,結縛其僧,遂殺之,亦燒其籠,籠內刻木爲將,天然爲
- 4행 人形,呼之則各率其衆,而變化無窮,數億萬軍兵,豈能當乎,王
- 5행 驚起,乃夢也,而帝君言語在耳,俄而東方欲曉,即命五軍門
- 6행 大將入現,五軍門大將崔致白入現,王執其手,謂曰,今日午後,
- 7행 自南門外,有一僧載籠,自南方來矣,君即伏兵其處,結縛

### [제3쪽]

- 1행 其僧,燒其籠,是乃倭僧也,君勿泛然,致白奉命,而出伏

7) 이 작업에서 성결대학교 인문대학 한국학부 姜求律教授의 도움을 받았다.

2행 兵其門外,以俟之,是日午後,果然有一僧,載籠自南方  
 3행 來,遂發兵縛之,其僧,乃慨然嘆曰,此乃關雲長之事也,昨  
 4행 刻木呼之,則衆皆響應,惟獨關雲長之身,不動矣,安  
 5행 知今日有此變也,惜乎,倘非關雲長數千數萬兵接之,安  
 6행 可當也,遂自頸而死,開籠視之,果若刻木爲人形,背上  
 7행 刻萬古名將之名也,於是,令國中,敕修戰備,九月初

## [제4쪽]

1행 三日壬午,烽火自巨濟來,皆云,倭船八筏舟百餘隻,來  
 2행 泊島邊,所過郡縣,無不殘滅,卽命忘憂堂郭再佑<sup>祐</sup>,率  
 3행 兵二萬,去守烏嶺,又命慶尙道崔慶浩·金千鎰·柳惠  
 4행 益,三萬拒之,倭卒,各分道出攻,倭酋平秀吉,直入烏  
 5행 嶺關,烏西飛,直守平壤,賀羅北,直渡漢江,是時,郭再  
 6행 佑<sup>祐</sup>與秀吉戰不利,登夏<sup>火</sup>旺山,使守戰備,倭將北地,將  
 7행 兵,自靈鷲來,再佑<sup>祐</sup>使裨將安澤令,被紅衣,峯峯呼之

## [제5쪽]

1행 曰,瞻之在前,忽然在後,來去若飛鳥,北地,望見曰,此乃神  
 2행 將也,遂屯兵於夏<sup>火</sup>旺山東角門外,十一月十六日夜半,北地,作  
 3행 偶人,以投城中,將卒,盡驚墮地,死者過半,再佑<sup>祐</sup>遂收兵  
 4행 遁走,還守京師,是時,崔慶浩·金千鎰·柳惠益守晉陽  
 5행 城,堅壁不出,倭將昔種奴,圍城一月,觀察城勢曰,晉  
 6행 陽易與耳,灌水城中,不浸三尺,民無叛意,灌水三  
 7행 日,終不開壁,種奴,結草爲人,夜半以投城中,時則癸

## [제6쪽]

1행 巳正月初五日也,城中一老嫗,見偶人,搏手大呼曰,城  
 2행 中入倭賊,城中士卒,一時大驚,自投城下,種奴,遂灌

- 3행 水城中,城門自開,倭卒,遂入城中,倭將地力,放兵四  
4행 脚,崔·金·柳三壯士,擊劍大呼曰,天運如此,今將安之,  
5행 慶浩,匹馬單騎,遂身犯賊前,手奪倭將龍泉劍,負  
6행 送故鄉全羅道樂安邑,遂登樓,作詩曰,蠶石樓中三  
7행 壯士,一盃笑指長江水,長江萬古流滔滔,波不渴兮魂

[제7쪽]

- 1행 不死,題畢,三壯士,皆投樓下江水死,倭將,遂登樓,大  
2행 饗賞功,與晉陽妓生論介,拔劍對舞,於江中巖上,論  
3행 介,卽慶浩之妾也,是日,論介,作歌曰,風飄飄兮舞袖翻,  
4행 江山異兮舉目悽,彼狡童兮不與好兮,嗚呼哀哉,此  
5행 何天地,日暮途窮世事悲,歌罷,抱倭將,遂墮于江水  
6행 死,此時,乃三月初一日也,朱夢龍,杖劍呼軍,與鄭起龍·姜  
7행 得龍,將兵三千,屯于蠶石右,堅壁不出,十六日夜半,

[제8쪽]

- 1행 與地力戰,大破之,倭卒,遂遁走平壤,保晉陽,世稱三龍  
2행 壯士,四月初四日,倭酋賀羅北,直入漢陽,燒宮闕,以動  
3행 東都,放兵四脚,王大驚,歷問于朝臣曰,今年兵火,古  
4행 來所無,何以保社稷,奉先廟乎,羣臣皆曰,倭酋平秀  
5행 吉·烏西飛·賀羅北用兵,昔日,司馬穰苴,不能過也,莫  
6행 如請獻降書慎,且無事,萬口和付,并爲一談,牢不可  
7행 破,鰲城府院君李恒福·鶴峯先生金誠一兩人進曰,今

[제9쪽]

- 1행 若降之,禍近中原,兩禍并至,豈委質爲臣於倭奴,王曰,  
2행 卿等一二人,惟同吾志,何敢不力乎,遂避賊于北漢寺  
3행 中,倭兵,遂犯獯獯猾賊,不可俱狀,於是,鰲城·鶴峯見



4행 于王曰,當今之勢,非天力,無可以制之,臣等當救於中  
 5행 原矣,王曰,諾,遂命金致慶,作請救文曰,朝鮮國王某  
 6행 頓首泣血百拜語,小臣之國,待罪東方七八世,以陛下  
 7행 優恤之澤,惶惶奉職矣,不意今者,倭酋來侵,風雨,到於  
 [제10쪽]

1행 先陵,烽火,近於 祖考,驚惶痛迪,仰望天日,當澈泉之  
 2행 心,今當失魂,誰可免於倭酋之大禍,何由復見太古之聖  
 3행 化哉,所謂平秀吉·鳥西飛,出魂爭戰,變化無窮,志在  
 4행 千里,身據一隅,直守平壤,其意難測,伏望陛下,以愛  
 5행 恤之情,特下大命,以救東海之蟻,暫傾儲水,以添涸轍  
 6행 之魚,一示神明之威,則父有愛子之心,子有事父之孝,  
 7행 則豈不天倫之大理哉,伏願陛下,垂察焉,題畢,遂發,

[제11쪽]

1행 時則三月十三日也,李鰲城·金鶴峯,裹足千里,晝  
 2행 夜險行,至于中原,則神宗皇帝,卽位之時也,入見天子  
 3행 曰,小臣之國,倭賊來侵,已至於左衽之境,伏祝陛下,一  
 4행 下神明之威,則生當殞首,死當結草,且倭漢之意,非  
 5행 但朝鮮,實在大國,伏乞陛下,念之念之,天子曰,朝鮮  
 6행 八年兵火,天之運也,朕雖送萬兵,終無益矣,汝且無  
 7행 言,歸報汝王,終無許兵之意,鰲城執鶴峯手,痛哭曰,

[제12쪽]

1행 期日遷延,王必待矣,君則姑留大國,我則還報朝鮮,  
 2행 見其賊勢而來矣,嗚呼,國敗君亡,吾等何面目,復歸  
 3행 故國乎,遂別而歸朝鮮,是時,鶴峯叩頭,九重門外,泣  
 4행 血七日,天子曰,嗚呼,誠一爲國之心,至矣盡矣,遂命金

5행 以成,將兵五萬,以救朝鮮,是時,鰲城還國,見于王,

6행 以不聽之意告之,王下床呼泣曰,國之存不存,都在

7행 先生之手,何知今日,有此憫迫落膽之說耶,先生不

[제13곡]

1행 辭勞力之苦,復往請救,企望企望,鰲城曰,國家危急之

2행 中,殿下命令之下,何辭萬里之行乎,即日復裹行狀,晝

3행 夜進程,六月十七日,至平陵,無人之地四千里,日色晦冥,

4행 風雨暴起,咫尺不辨,自分必死,遙看一處,燈火耿耿,直

5행 至其家,則乃數間茅屋也,屋中有一老嫗,出門欣然

6행 曰,君在何國,答曰,我乃朝鮮之人,國內有急,請救次

7행 去中原,道遇風雨,冒死到此,嫗笑曰,許多村落,焉往

[제14곡]

1행 不可而到此鄙陋之家,鰲城曰,日已暮矣,風雨不時而

2행 起,我今何往,嫗且勿忌,嫗曰,有何大事,晝夜就行乎,

3행 答曰,我之國內,倭兵來侵,已至敗亡之境,何惜晝夜之

4행 行乎,嫗曰,入于房內,鰲城,入房視之,則有一將軍,杖劍而

5행 立,即出門外再拜,而因問老嫗曰,彼何將軍,入于房中

6행 乎,嫗拍掌大笑曰,君勿惧此,乃中原名將李如松之

7행 畫像也,鰲城,再拜而跪曰,此將之尚存否,嫗曰,雖存,

[제15곡]

1행 然,尚今伐匈奴,而五月不返矣,鰲城曰,由何藏此像耶,

2행 於是,嫗就坐,執鰲城手曰,朝鮮兵火,天之運也,然此

3행 像,庶幾救之,君買此畫像否,妾少時,家產萬金矣,

4행 畫<sup>盡</sup>散之後,但買此畫像,以待君久矣,君即買此畫像,

5행 而獻于天子,以請此將,若不然,則君之國內,無遺種矣,



6행 且天子見此畫像,則必問其所出處矣,君即答曰,臣

7행 至江陵子午谷,則有一童子,遺此畫像矣,如是,則可幸

[제16쪽]

1행 也,鰲城,遂以銀千兩買之,日已明矣,遂別行數十步,顧

2행 見其處,則嫗因忽不見,而但有一大巖而已矣,鰲城,心

3행 怪不已,而遂至中原,則鶴峯,已得請兵矣,鰲城,見以

4행 成之像,歎曰,此將雖去,少無益矣,入見天子曰,臣觀以成

5행 之像,則非大將之材也,請許他將,以救之,天子曰,國

6행 內無踰以成之材也,鰲城,跪進畫像曰,請許此將如

7행 何,天子見而大驚曰,此畫像,何從出乎,鰲城,以老嫗之

[제17쪽]

1행 語答之,天子曰,向日子午谷,有雲氣如炬,安知今日有此

2행 奇異之事乎,以此觀之,卿之國運,天所以助也,此乃朕

3행 之干城之將李如松之畫像也,然,朕向送萬里之外,

4행 卿勿復言,但與以成同往,鶴峯遂叩頭,吐血數升曰,何惜

5행 一將,以亡東藩之國乎,天子曰,朕見誠一之心誠,不惜

6행 萬金之材也,然,如松伐匈奴,五月而不返矣,鶴峯

7행 對曰,匈奴,伐之可,不伐之可也,至於小臣之國,朝不慮

[제18쪽]

1행 夕,度一刻如三秋,伏乞陛下,急下班師之詔,天子默然

2행 良久,遂命如松之弟如栢伐匈奴,而招如松還國,如栢

3행 遂至北邊,以此意告如松,如松曰,惜乎,留此五月,畫<sup>盡</sup>破

4행 匈奴也,以兵屬其弟,懷憤而歸,入見天子,天子曰,即今

5행 朝鮮,倭卒來侵,至於敗國之境,故百以思之,則惟我

6행 將軍,能成大功矣,朕明日,出門送之,如松對曰,雖然,

7행 朝鮮兵火,天之運也,雖去無益矣,不如不去矣,天子

[제19쪽]

1행 曰,卿之將畧,朕所知也,何辭何疑,又問度用幾萬兵

2행 乎,對曰,非千萬兵,不可制之,天子乃發銳騎十

3행 萬,各賜銀十斤曰,卿等,今往朝鮮,能成大功,何惜萬

4행 金乎,如松對曰,小將,今往朝鮮,見其王像,若不肖,則

5행 班師矣,遂率兵發行,一念常憤未成北伐之功,而又

6행 怒鰲城·鶴峯請救中原,謂鰲城曰,大軍就行,豈可無

7행 端啓行乎,君得獻龍肝,若不然,斬汝而班師,鰲城,遂

[제20쪽]

1행 至白馬江邊,焚香祝天曰,嗚呼,冥冥太空,使此恒福,

2행 復見太古之聖化,而復見君臣之義,遂痛哭江邊,晝

3행 夜不息,有一龍,出見于手中,鰲城曰,汝欲遺我肝膽,而

4행 來也,龍搖尾叩頭,鰲城,遂拔劍斬之,出肝而獻于如

5행 松,如松見而大驚曰,此乃神也,以爲餽軍使者,遂屯兵

6행 江邊,留之十餘日,望見平壤老峯山上,有白旗翩翩,

7행 問于鰲城,鰲城答曰,此來倭卒,欲覘大軍矣,九月初

[제21쪽]

1행 十日,遂至鴨綠江邊,如松望見天氣,倭氣滿天,無一点

2행 旺氣,如松曰,卽今逐之,今日破之,小饗軍,遂發兵逐之,

3행 倭卒望見,大驚遁走,大軍違食,霜早太半,如松大怒

4행 曰,餽軍使者,尙今安在,卽令斬之,鰲城,大惧,揮袖見

5행 鶴峯,鶴峯曰,我餽軍使者,因以入見如松,如松大怒曰,

6행 汝不餽軍以奚往,卽令斬之,鶴峯曰,小將,朝鮮領相,安爲

7행 餽軍,能成大功,斬領相而幸也,若不然,則是不可使聞於

[제22쪽]

1행 隣國也,願將軍察焉,如松曰,吾但審餽軍使者,不審  
 2행 領相也,今餽軍使者誰也,鶴峯曰,李恒福,如松曰,君  
 3행 出焉,因望<sup>擊</sup>入恒福,恒福入見如松,如松大怒曰,旣任餽  
 4행 軍,則不餽軍,而何往,卽令斬之,鰲城曰,是何言也,餽軍  
 5행 久矣,如松曰,何時而餽軍耶,鰲城曰,將軍不信吾言,  
 6행 則呼軍問之,則可知也,如松,遂計數士卒,則皆已饗矣,  
 7행 無以就斬,皆鰲城揮袖,鶴峯之意,與如松詰難之

[제23쪽]

1행 間,餽軍之意也,卒如其謀,以免就斬,如松,遂屯于江  
 2행 邊,留之二十餘日,烏西飛據平壤,道路阻節,十一月初十  
 3행 日,如松望見朝鮮天氣曰,慶尙道高靈金德令,天出之  
 4행 將,以牌文傳於王曰,急時治送,王見之,卽下令高靈索  
 5행 之,果有德令,德令卽爲秣馬,到于鴨綠江邊,夜已深  
 6행 矣,計其里數,日行二千里,明日鷄鳴初,入見如松,如  
 7행 松曰,吾乃招君之意,欲行大事,君能聽之否,德令曰,

[제24쪽]

1행 小將,身雖卑矣,國家危急之中,將軍命令之下,豈不殊  
 2행 死,如松大奇之,執其手附耳語曰,國內卽今,殺氣衝天,  
 3행 且倭酋烏西飛,直據平壤,道路阻節,烏西飛出魂爭戰,  
 4행 變化無窮,若殺西飛,則其餘,不足憂也,君能斬之耶,  
 5행 德令曰,請斬之,以獻將軍,遂拜謝而出,卽日促馬至江  
 6행 邊,時兵火之餘,舟楫隔絕,幾不能渡,祝天叱馬曰,汝  
 7행 雖微物,食祿朝鮮,何不慨然哉,其馬立聽後,猫足而

[제25쪽]



- 1행 善渡江水,直至前日所親妓生花月之家,花月,本德令  
 2행 平日爲平安監司裨將時所得妾也,花月至是,倭將  
 3행 守廳次入去,但有其母春桂而已,春桂見德令,曳袖入  
 4행 房曰,將軍當此亂世,有何故而來耶,因下泣嗟歎不  
 5행 已,德令曰,吾一別以後,花月容貌,恒入夢中,故當亂世,  
 6행 恐不復見而死也,故不遠千里而來也,今花月何往,  
 7행 而汝獨嗟歎不已,春桂曰,花月倭守廳次入去,而明

[제26쪽]

- 1행 日午後,則可見矣,然而所以嗟歎者,恐有慈愛之間,不忍  
 2행 變故,自然流涕矣,將軍,隱於房中不出,德令,遂隱於  
 3행 房中,以待之,明日午後,果然花月出,德令倚門竅視,倭  
 4행 卒數十人,以玉輦擔擧而出,恍若洛浦仙娥也,春桂見花  
 5행 月付<sup>附</sup>耳語曰,慶尙道高靈金裨將,欲見汝而昨日到此  
 6행 矣,花月聞之,側目而視其母曰,金裨將何許人也,吾  
 7행 所不知,卽命倭卒,乘輦入去,而謂其母曰,殺牛釀酒,

[제27쪽]

- 1행 明日午後,吾復出矣,遂入去,德令大怒,抱憤默坐,以  
 2행 待復出矣,明日午後,果然花月復出,問其母曰,能辦<sup>辦</sup>  
 3행 酒肉乎,母曰,辦<sup>辦</sup>矣,花月乃召倭卒曰,汝等來此久矣,  
 4행 應知飢餒,吾今欲饗汝等次,大辦<sup>辦</sup>酒肉耳,汝等皆就坐  
 5행 飲酒,倭卒大喜曰,吾等復見太平之世矣,遂皆就坐,  
 6행 厭食醉飽,盡臥庭下,醉睡不醒,於是,花月,遂入房中,  
 7행 執德令手,問曰,將軍胡爲到此,必有所意,勿以疑訝,

[제28쪽]

- 1행 以實言之,德令笑,撫花月之乳,以雜談譏刺<sup>刺</sup>,花月曰,身

2행 雖賤,曾與將軍,已許心情矣,將軍若不實言,則雖  
 3행 欲大事,非小妾難也,願將軍,以實言之,德令,遂抱花  
 4행 月之腰,付<sup>附</sup>耳語曰,今我來此之意,欲圖西飛也,花月曰,  
 5행 雖然,烏西飛,萬古名將,無雙之流,利劍強弓,不透其  
 6행 身,其智如神,其力如山,變化無窮,知將軍必來,城隅  
 7행 四方,懸鈴數疊,雖飛鳥,難可投入也,此將奈何,德令  
 [제29쪽]

1행 曰,然則有何謀而得入乎,花月曰,小妾,先入東門一  
 2행 隅,聳其鈴也,將軍,初更入來,庶可圖之,德令曰,諾,花  
 3행 月已定約束,乘輦入去,是夜初更,花月,以大小便,頻  
 4행 頻出入城門,以綿填鈴,聳其響,坐於西飛之側,以  
 5행 待德令矣,德令是夜,直踰城入,果鈴填無聲,德令,遂  
 6행 入城門,立于隄廳上,花月聞足踏之聲,暗然出門,執  
 7행 德令手曰,將軍無勞入來耶,德令曰,然,今烏西飛安

[제30쪽]

1행 在,花月曰,舍處客館,建房九重,其房內,刻木爲人  
 2행 形,天然杖劍立,小勿爲疑,隨復入來,德令,遂隨裳而  
 3행 入,果然有將,房房杖劍而立矣,至近房,則三人就寢,  
 4행 一人兀然坐,側目而視之,德令,欲試劍術之際,西飛  
 5행 之劍,見德令自投向前,德令,遂把其劍柄,問花月  
 6행 曰,西飛誰耶,花月曰,坐者卽西飛,而今方睡矣,  
 7행 德令,瞋目視之曰,何謂睡也,花月曰,妾久與侍衛

[제31쪽]

1행 而視之,此目翻之則不睡,不翻則睡之,今方睡之,三  
 2행 日矣,德令,以足就其鼻,西飛欠伸,而揮手,領金鱗

3행 逆起,德令遂拔劍,斬其首,持其首,出房之際,西  
4행 飛之身暴起,拔劍擊樑,軍中震動,德令,將欲騰  
5행 空,花月把德令手,而泣曰,妾何爲哉,德令曰,吾將  
6행 與汝同去矣,花月曰,今西飛已死,而妾獨與將軍  
7행 同去,則人皆謂以妾之謀殺西飛也,則後必有罪於

[제32쪽]

1행 於<sup>衍字</sup>父母矣,願將軍請勿疑訝,同斬我首持去,德令  
2행 遂蒙面而斬花月之首,出其花月之家,惻隱情狀,何  
3행 忍言哉,春桂見德令曰,將軍必斬吾女首來矣,安在,  
4행 德令含淚,而獻首,春桂受其頭,卽以燒酒一斗,勸  
5행 德令曰,將軍急飲發行,德令立飲,卽渡江以獻西  
6행 飛之首,西將皆不信,而如松下床再拜曰,吾知必斬  
7행 西飛之首來矣,昨日空中,有鳥西飛,吾欲彎弓

[제33쪽]

1행 射之,則其鳥墮于空中,此必西飛之魂也,別以奇  
2행 之,留飲一日,如松見鷄林,紅氣泛泛,喜氣滿面曰,  
3행 此乃朝鮮王氣也,卽日渡江,直驅平壤,倭卒已失  
4행 大將,號泣之聲,恰如滿澤之蛙聲也,如松擊倭陣,  
5행 倭陣中有一人,大呼曰,朝鮮將帥金德令,暫聽吾  
6행 言,上年,吾來時,惟我將軍鳥西飛,請吾等曰,吾  
7행 觀天氣,必斬德令之首而可也,命我送之,我到爾家,

[제34쪽]

1행 則汝以少年,被喪方睡床上,吾不忍斬之,但取汝頭  
2행 銀環,以獻于將軍,能無今日之變,不行將軍之令,  
3행 眞所謂以小失大也,秘網<sup>備忘</sup>敬錄焉



4행

5행 庚子八月望日臣李山海頓首再拜奉教書

6행, 7행

印 章

手決

### 3. 자료에 대한 소견

이 자료가 쓰인 시기는 '庚子八月望日'로 되어 있는데, 1592년(宣祖 25) 임진왜란이후의 庚子年은 1600년(선조 33), 1660년(顯宗 1), 1720년(景宗 즉위년), 1780년(正祖 4), 1840년(憲宗 6) 등이 있다. 이중 1600년(선조 33)에 이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자료에 나타난 書者가 宣祖代의 재상인 李山海(1538-1609)가 왕명을 받아 편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李山海의 文集인 『鵝溪遺稿』에는<sup>8)</sup> 이 자료의 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고, 이 자료의 書者의 官等 및 官職이 記載되어 있지 않아 同一人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 이 글은 李山海가 宣祖의 명을 받아서 쓴 實記의 型式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小說 또는 實記小說에 가깝다. 게다가 실제로 이산해가 작성하였다면 본문 중에 나오는 실제 인물의 姓名이 틀릴 수가 없을 것이고, 더군다나 王命으로 쓴 글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文體도 세련되지 못하고 문장의 구성도 어색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그러므로 이 글의 전체적인 느낌을 통해볼 때 조선후기의 어느 시기에 임진왜란과 관련된 野史를 바탕으로 형식만 왕명을 받아 쓴 實記의 형태를 취한 小說로 추측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8) 『韓國文集叢刊』 47 所收.

## Real Story in the Reign of Sunjo the Great published in Late Joseon

Chang, Dong-ik

### Key Word

Real Story in the Reign of Sunjo the Great (宣祖大王實記), Sanhe Lee(李山海),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壬辰倭亂), Duckryung Kim(金德令), Hwawoel(花月),  
Kwan woo(關羽), Army Related Story(軍談小說), Real Story(實記小說).